

● 민주화유적지 답사기 (1)



들풀처럼 납작 엎디었던 스물두 해 짧은 생을 불꽃으로 되살린, 진정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산화 30주기를 기념해 지난 2000년 11월 청계천로, 그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 동판을 박았다. 40×30센티미터 가량. “이곳은 영원한 노동자의 벗 /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 /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 분신 항거한 곳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걷고 있는 그 길. 횡단보도 앞 신호등 기둥 밑바닥에 색바랜 동판 한 장으로, 그는 육신을 불태워 노동혼으로 남았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청계천로, 노동자들의 발길 아래, 불꽃으로 눕다

원시림

그를 만나러 간다.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나 학교라고는 2년도 채 다니지 못했던 진짜 노동자. 두 번의 가출, 굶기를 밥먹듯 했던, 신문팔이·구두닦이·삼발이장사·깎팔이·우산장사·뒤밀이·시다·미싱사·재단사, 가난한 집안의 착한 가장, 그리고 몸을 던져 노동자의 영원한 벗으로 남은 사내. 전태일이 분신했을 때, 그를 지켜보던 노동자들의 눈빛도 그러했을까· 평화시장에 오밀조밀 늘어선, 노동자들의 삶같은 부속품들과, 노동자들의 몸뚱아리같은 헌책들이 한길까지 밀려나와 복작거리는, 길거리 한쪽 모퉁이에서 동판을 마주쳤을 때, 우리

는 느닷없고 당황스럽고 안쓰러웠다, 마침내 참담한 심정이 된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불꽃이 여기서 처음 지펴졌구나! 머뭇머뭇 손을 뻗쳐 동판에 대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고개를 들어 거리를 둘러본다. 바로 앞에 신호등 기둥이 보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나나 사과 복숭아 키위를 놓고 과일 믹스를 파는 난전, 평화시장 라·마동 모퉁이의 송월타올과 계단 옆으로 늘어선 국민작크, 중앙금속, 대한서점, 유진화학…… 손을 떼고

하는 가젠데, 나두 가끔 나오고 그래요. 겨울에는 잉어빵도 팔고, 여름엔 이런 주스도 팔고…… 나두 가끔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 학생들(한양대 법대 학생회)이 거진 매일 교대루 나와서 깨끗하게 닦고 가고 그래요. 인제 쓰레기는 안 쌓여요. 보는 눈덜이 많으니까……”

이어 근처의 가게들을 드나들며 수소문을 한다. 그러자 한 아저씨가 “이 거리에서는 저 낭반이 켈 오래 됐을걸요” 하며, 장기관 곁에서 훈수를 두고 있는 머리가 벗겨진 중노인을 가리킨다. 동판이 박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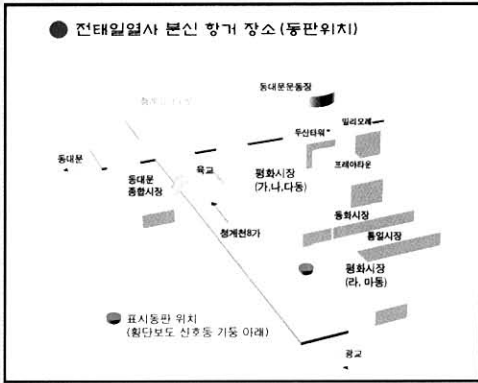
가출, 굶기를 밥먹듯 했던, 신문팔이·구두닦이·삼발이장사·껌팔이·우산장사·뒤밀이·시다·미싱사·재단사, 가난한 집안의 착한 가장, 그리고 몸을 던져 노동자의 영원한 벗으로 남은 사내. 전태일이 분신했을 때, 그를 지켜보던 노동자들의 눈빛도 그러했을까?



서너 걸음 뒤로 물러서니 100리터들이 푸른색 봉투여남은 개에 담긴 쓰레기 더미와 나무로 짜여진 이 동식 쓰레기통이 발에 걸린다. 듣자하니 작년까지는 이 쓰레기 봉투들이 동판 위에 쌓였던 날도 많았다고 한다.

“영화(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를 보고 나서부터 알았지요, 뭐.” 동판 가장 가까이서 난전을 하는 사십대 중반쯤의 아주머니에게 복숭아 믹스를 두 잔 산 뒤, 전태일에 대해 묻는다(이 땅의 많은 민중들은 아직도 겸손하거나 수줍은 것과는 거리가 먼 이유로 인터뷰에서 이름 밝히기를 꺼린다). “원래 동생이

곳으로부터 30미터쯤 떨어진 ‘동신서점’ 주인 유 씨(64)다. “64년부터 이 자리서 장사를 했으니까, 사십년 다 돼가지.” 옳다 싶어 우선 전태일의 분신 장면을 목격했는지 묻고 나서, 당시 평화시장 피복계통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내쳐 묻는다. “그때 나는 지방에 물건(책) 떼러 가는 바람에 못 봤지만, 얘기는 들어서 다 알지. …지금 생각하면 한참 열악했어. 그때는 2·3층이 다 옷공장이었는데, 80년대부터 다른 데로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지. … 글썄, 그래두 우리는 자영업자였으니까, 그쪽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 그저 힘들게 일하는구나 싶기는 했



어도... 전태일· 대단하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으니, 딱하기도 하고..."

유씨 할아버지에게 물으니, <전태일 평전>에 집회 장소로 자주 등장하는 '국민은행'은 80년을 전후해 '동화시장'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가 가리켰던 '송월타올'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가 되나온다. 전태일이 온몸을 불사르며 뛰쳐나왔을 삼사십 미터 남짓한 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거리명을 '전태일 거리'로 개정했으면 하고 추진중이지만 쉽지 않아요. 지난 30주기때 '전태일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생기기도 했지만, 재정문제로 그 역시 어렵구요. 지금도 이 지역은 피복계통 노동자들의 삶과 멀지 않으니까, 이 건물을 개축해서 자료실 등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곧 청계천이 복원된다는데... 밑으로 청계천이 흐를 청계천로 위로는 청계고가갓가 뻗었고, 뒤쪽의 평화시장 건물 벽엔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번지'라는 주소가 적혔다. 우리는 신호동이 몇 번 바뀌도록 그 언저리를 맴돈다.

종로구 창신2동에 자리한 '전태일기념사업회(이사장 김금수)'는 동판이 있는 자리에서 도보로 십여분 거리에 있다. 동대문 지하철역 1번출구를 기준점으로 삼고, 골목을 따라 꼬불꼬불 찾아가야 한다. 주로 전태일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문화공연과 그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 그리고 '전태일문학

상'을 공모·시상하고 소식지를 만들어 후원회원들에게 보내준다. 그런 업무들 외에도 지방의 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할 때면 잠자리로 이용되기도 한다. 1층은 '청계피복노조'와 함께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당시의 피복공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3층은 가정집 같은 사무실이다. 상근직원은 이형숙 사무국장(32)과 김수정 사무차장(27) 두 명.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장소로는 너무 민망한 게 사실이지요. 그 자리를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관

고려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수정 사무차장은 말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태일 열사가 위인전을 통해 보여지는, 태어날 때부터 위인 같았던 인물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노동자와 똑같은, 친구 같은 사람으로 늘 기억 속에 남았으면 합니다.”

창신동 거리를 걸어 나오며 양쪽으로 늘어선 옷공장들을 힐끗거린다. 미싱 여남은 내가 놓여진 공장들은 여전히 열악해 보이고, 가끔 다락으로 개조해 2층으로 사용되는 곳도 보인다. 멀리로는 네온사

〈민주화 유적지 답사기〉 연재를 시작하며

‘민주화 유적지 답사기’는 과거의 민주화 운동을, 지나간 역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까지 살아 숨쉬는 장소로써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거의 고통에 빚져서 살고 있다는 의식의 환기와 함께, 흑여 잊혀졌거나 홀대받는 유적지가 있다면 머리 숙여 반성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민주화 유적지 답사를 의뢰받았을 때, 필자는 덩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인생 공부라 되겠다고도 생각했고, 그간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유약한 정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다는 소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연재를 앞두고 보니 걱정이 태산과 같다. 70년대에 태어나 80년대까지 지방 소도시에서 별탈 없이 자랐고, 90년대에 대학과 사회생활을 한 짧은 인생편력이 ‘사회’와 ‘민주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두려운 탓이다. 모쪼록, 앞서 가신 선배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빌 뿐이다.

리하거나, 거리명을 ‘전태일 거리’로 개정했으면 하고 추진중이지만 쉽지 않아요. 지난 30주기때 ‘전태일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생기기도 했지만, 재정문제로 그 역시 어렵구요. 지금도 이 지역은 피복계통 노동자들의 삶과 멀지 않으니까, 이 건물을 개축해서 자료실 등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형숙 사무국장의 말이다. 일각에서는 ‘전태일 동상’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도 일하는 장소라서 훼손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청계천 복원만해도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히 복원돼야겠지만, 주민들의 생계를

인 번쩍이는 밀리오레, 두산타워가 보이는데, 가까운 전봇대에는 ‘시다·미싱사·재단보조 구함’하고 씌어진 광고지가 나뭇거리며 붙었다.

원시립

본 명 : 양종국

- 1972년 충북 제천 출생
- 장수대 신문방송학과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졸업
- 1999년 ‘민주신문’ 가운문예계 출판소설 당선
-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 2001. 5 - 현재까지 ‘민족문학작가회의’ 간사를 맡으며 소설 창작중.